호남석유화학, EG 가격상승 수혜!

우리은행, 현대 인수로 이익개선 ... 삼성종합화학도 상승 분위기 기대

사우디아라비아 SABIC이 8월 아시아 지역에 대한 MEG(Monoethylene Glycol) 계약가격을 7월보다 높게 책정하면서 호남석유화학 등 국내 관련 화학기업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리증권은 사우디 SABIC이 8월 아시아 EG 공급계약가격을 톤당 670달러로 7월보다 50달러 높게 결정해 국내 EG 생산기업인 호남석유화학, 삼성종합화학, 현대석유화학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대부분의 아시아 Polyester 생산기업들이 가동률을 80-100% 수준으로 높이면서 큰 폭의 수요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Spot 가격이 중국의 신규수요로 전주대비 12.5달러 상승한 655달러에 거래되고 있는 것이 SABIC의 가격인상 요인으로 분석된다.

중국 Polyester 생산기업들의 공장 가동률은 8월에도 높을 것으로 예상돼 중국의 MEG와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 수요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Shell Chemicals 역시 아시아 MEG 계약가격을 SABIC보다 20달러 높은 690달러로 결정했으며, Dow Chemical도 말레이시아 Optimal Glycol의 MEG, EO 공장 가동을 7월3일부터 중단해 타이트한 수급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증권 김영진 애널리스트는 “EG 수급이 2003-2004년 타이트하게 지속돼 호남석유화학은 재무 안정성과 안정적인 영업활동 현금흐름, 그리고 현대석유화학 인수로 주당순이익 개선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시의적절한 증설과 원가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효과까지 배가될 것으로 보고 적정주가 4만4300원에 <매수> 의견을 제시했다.

국내 MEG 시장의 선두인 호남석유화학은 MEG 생산능력이 41만톤으로 2002년에는 가동률 100%를 달성했으며, 전체 매출 1조2296억원 중 EG 매출이 249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현대석유화학 인수에 따라 MEG 생산능력이 80만톤으로 확대돼 시장주도권을 완전히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삼성종합화학은 11만톤의 MEG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가동률 100%로 전량 국내판매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7/16>